

# “올해는 미디어 시장 판갈이 원년”

## 언론노조, 미디어·산업 분리 중점 추진

언론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올해를 ‘한국 미디어 시장 판갈이 원년’으로 삼고 미디어와 산업의 분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언론노조는 10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실행할 최우선 과제로 미디어·산업자본의 분리, 미디어 노동의 차별과 불평등 완화, 미디어 자율규제와 탈포털 로드맵을 통한 저널리즘 복원, 시민의 정보·콘텐츠기본권 강화를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를 미디어 판갈이의 원년으로 삼자”를 목표로 갖고 있다”며 “소수 재벌과 해외 자본에 의한 미디어 시장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고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 전문 자본과 산업 자본 간 관

계를 재설정하는, 미디어와 산업 분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20대 대통령선거 6대 과제로 미디어자본 규제, 미디어 노동시장 규제, 공영 방송 언론개혁, 미디어 민간자율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언론노조의 미디어 산업자본 분리는 산업 자본이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제안이다. 현 방송법은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는 10%, 종편은 30%, 신문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방송사는 지상파 소유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자본 규제에는 10조원에서 30조원까지 올리는 법안까지 나왔는데 규제 자본 규모에 따라 규제 허들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규제는 더 이상 규제가 아니다”며 “이런 바에는 자본 성격에 따라 분리해 미디어 자본의 독립성을 강화해주고 미디어 산업에 취약한 자본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규제라는 천정을 아예 제거해버리자는 일종의 언론노조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디어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언론노조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증가로 언론사 디지털 콘텐츠,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부분의 불안정 노동시장 확산이 확대됐다고 보고 불법 파견 용역과 위장 프리랜서 철폐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노동의 차별과 불평등 완화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이통과 야외 활동 감소로 유료통신망과 OTT 등 유료 콘텐츠 플랫폼 이용량 증가가 통신 대기업 재벌의 수익 증가로 이어져 달라진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정보 및 콘텐츠 기본권 강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윤 위원장은 “재벌 미디어들이 소수 재벌과 국의 지분을 위한 OTT 시장, 즉 다른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 영역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과 함께 확장하면서 과거에 시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즐겼던 대다수 콘텐츠를 이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는 즐길 수 없다”며 “미디어 공공성 축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미디어 시장의 변화들이 공공성 해체, 그로 인한 여론의 불균형, 미디어 소비 권리의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미디어 복원을 하기 위한 공공 콘텐츠 개념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올해 5040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 보장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옳음보다 친절 선택하라… ‘존중의 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존중의 힘’ (올림)의 저자들은 이들에게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고 짚는다. 저자인 김찬배 경영학 박사과 자기계발 컨설턴트 강성룡·이승철은 “존중이 능력 이 되는 시대가 왔다”며 “상대방의 인격을 조급이라도 존중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존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옳음보다 친절을 선택하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 생각

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등을 키워드로 존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다.

“자신보다 지위나 권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위나 권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관용은 사인인 척할 테니 말입니다. 권력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잘 하지만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겠지요.”

“우리의 언어습관에는 알게 모르게 슈티즘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는 여유를 가져주면 화낼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뉴시스

## 여기자 10명 중 9명 “성희롱 노출되면 침묵”

여성 기자 10명 중 9명이 성희롱에 노출되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진행한 ‘한국 여성 기자의 업무 실태 및 직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여성 기자 중 응답자 85.7%가 성희롱 경험에 노출됐을 때 피해 공론화보다 침묵을 택했다. 공론화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14.3%에 그쳤다.

이 조사는 협회가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로 진행했다. 지난해 5월25일부터 6월9일까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는 협회 소속 31개 언론사 기자 1464명 중 693명이 참여했다.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 중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당황해서’(20.2%), ‘취재에 방해될 우려’(14.0%), ‘승진 등에서 불이익 우려’(9.1%) 순이었다.

복수응답으로 답할 수 있는 공론화 후 불이익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 39명이 불

이익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39명은 ‘실리적 압박감’, 22명은 ‘악의적 소문’, 12명은 ‘업무 부담한 대응’, 9명은 ‘비난 혹은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후 회사의 처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25.3%에 달했다.

대부분의 여성 기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이 있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관련 9개에 모두 ‘없다’고 답한 사람은 97명(14.0%) 뿐이었다. ‘성적인 이야기나 음담패설을 들은 적이 있다’, ‘비인간적 등 위모, 옷차림, 몸매를 언급해 불쾌했다’는 질문에 많은 기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빈번하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는 주체로는 취재원과 사내 상사가 지적됐다. 추행이 벌어지는 장소로는 ‘취재원과 회의’(42.5%)와 ‘사내 회의’(36.6%) 지리가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협회가 최근 발간한 ‘우리는 깨질 때 더 빛난다’에 실렸다. /뉴시스



지난 10일 열린 신년 간담회 ‘2022년을 한국 미디어 시장 판갈이 원년으로’에 참석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 전망서·자기계발·메타버스·NFT… 새해 독서 트렌드

###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분석·발표

2022년 새해 독서 트렌드로 올해 전망, 자기계발, IT 신기술 및 재테크에 대한 도서가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이달 1~10일 회원들이 서재에 가장 많이 담은 도서 상위 50권을 바탕으로 새해 독서 트렌드를 분석,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새해를 맞아 2022년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담은 트렌드 전망서가 부상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2’는 지난해 12월 밀리의 서재에서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서재에 가장 많이 담긴 도서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콘텐츠가 전부다’,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대전망’ 등 각 분야의 새해 전망을 담은 도서들이 순위권에 들었다.

새로운 다짐과 포부를 반영하듯 자기계발 도서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인문서도 주목받았다. 특히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를 거쳐 밀리 오리지널 전자책으로 출판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중입니다’는 쟁쟁한 서점가 베스트셀러를 제치고 서재에 가장 많이 담긴 도서 3위를 차지했다.

새해 투자 심리도 올해 첫 독서 트렌드에 반영됐다. 새롭게 떠오르는 IT 트렌드를 파악하기 ‘NFT 사용설명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등이 상위권에 안착했다. 또한 ‘적금밖에 모르는 문과생의 돈 공부’, ‘주식 투자 절대 원칙’ 등 올해에도 여전히 재테크와 투자 열풍을 반영한 도서들이 관심을 끌고 있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